

10. 예루살렘 입성

신앙고백

찬 송 :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송가 138장)
 기 도 : 맑은이
 말 씀 : 요한복음 12장 12-19절

말씀묵상

베다니의 마리아 집을 나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에 한창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만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딛으시는 그 걸음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예루살렘의 백성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모두 자기중심의 생각에 빠져 제각각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13).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왕의 왕 모습과 매우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수많은 군사의 호위 속에서 입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는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연호했습니다.

2.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1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토록 무지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3.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19).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자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를 빼앗길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맺는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걸옷을 벗어 놓았다고 해서 모두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호성 가득했던 그 길은 사람들의 욕망과 허영만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빙慨데기 같은 그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길로 만드셨습니다.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하늘나라를 맛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적용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묵상할지 그 방법을 적은 뒤,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서 실천해 봅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사순절 첫째 주일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는 한 주이시길 소망합니다.

2.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국내미자립교회(말씀위에세운교회)를 후원합니다.

3. 말씀감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신복현 목사(대한기독교서회 문서선교실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복현 목사께서 3월 한 달 동안 주일 설교를 맡아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수요예배 안내

3월 9일(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로 수요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각 가정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 예배안내

교회는 좌석수의 3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되어, 150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주일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위원안내

주보 2면 하단에 예배위원을 안내해 드리니 담당자께서는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현금안내

온라인 현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 1904년

협동목사 : 윤성민
 부목사 : 천광우 정진영
 교육전도사 : 신새벽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지휘자 : 이영준
 반주자 : 임귀희 임미리 임하엘
 김성혜 이하림

제118권 제 10호

2022. 3. 6

The Ten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요 1: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1904
 DOON JEON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천광우 목사

* 표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154장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교독문	124. 사순절(1)	다같이
찬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41장	다같이

기도	1부: 이말자 권사 2부: 최광순 권사	
----	--------------------------	--

성경봉독	누가복음 4장 1-13절 (신약 93면)	인도자
------	------------------------	-----

찬양	나는 주를 성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영상
----	-----------------------	----

말씀	영원한 반려를 위한 십자가 고난의 길!	신복현 목사
----	--------------------------	--------

3월 봉사위원

	3월 6일	3월 13일	3월 20일	3월 27일
예배기독	1부 이말자 최광순	2부 박득년 장명미	3부 하연주 윤종진	4부 한준자 최진수
헌금위원				

1부 : 황영옥 2부 : 박정아

결단찬양	그 사랑 얼마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송영	시선	다같이
※죽도		신복현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말씀 : 천광우 목사	둔전아침목상

[누가복음 4장 1-13절]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3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둘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 1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30 중예배실
교육부서	유치부	오전 11:00 새성전2층
	어린이부	오전 11:00 교육관1층
	청소년부	오전 10:00 교육관2층
새벽예배		오전 5:30 새성전2층
수요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본당

<2022년 선교후원>

100주년 기념 해외 선교 : 임만호(캄보디아 프놈펜 둔전교회)
 해외 선교사 : 여기도(중앙아시아), 강경진(필리핀)
 김영생(인도네시아), 흥공성소신학교(중국목회자 선교)
 국내 미자립교회 : 군산서수제일교회(이창구), 말씀위에 세운 교회(최석원)
 국내 기관후원 : 칼 바르트센터, 지구촌구호개발연대
 남신도회 선교 : 은행골 우리집(김광수)

둔전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 방법

1. 카카오톡에서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2. 둔전교회를 검색합니다.



3.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버튼(채널추가하기)를 누릅니다.



4. 채널을 통해 둔전아침목상과 교회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김명숙 김영주·양웅모 김정예 김효영·정순진 김훈 박정아 박희군·이혜영
 신연호 유인숙 이군자 이상설·박옥년 이용준 이정훈 임완민·곽삼화 정재현
 하연주

◆ 감사헌금

임창세·주리에 강호성 남영옥 명민주 박상민 박재락 유병희 윤관순·박심원
 이말자 이상설 이순자 이용준·김향순 이정택 이지연 정귀자 채영숙 최미연
 황미선 무명2

◆ 선교헌금

곽삼화 이정택 이지연

◆ 건축헌금

양준원·홍은정 임완민·곽삼화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362,000	710,000	2,933,000	130,000	15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 1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표기됩니다.